



전주대, '천원의 아침밥' 재학생에게 제공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6일부터 단돈 천 원으로 식사가 가능한 '천원의 아침밥'을 재학생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아침밥 먹는 문화를 확산하고, 규칙적인 아침 식사를 통해 건강한 대학 생활을 응원하기 위함이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주대는 쌀 소비 활성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사업을 신청, 2학기부터 운영하게 된 것. 특히 전주대는 부족한 정부 재원으로 제한적으로 밖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고민하다가 교내 구성원과 선배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선배들은 기꺼이 후배들의 건강을 챙기며 '선배의 민행(선배들의 주는 만 원의 행복)'이라는 후배 사랑 릴레이 기부에 동참하며 더 많은 재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을 주관하는 흥성덕 기획처장은 "아침 일찍 끼니를 거르고 등교하는 일이 잦은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천 원의 아침밥을 통해 건강한 하루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는 매주 화·수·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까지 학생회관 식당에서 4,500원 상당의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고 있다. 다만, 선배들의 기부 실적, 재학생들의 이용 수요에 따라 기간 및 날짜가 조정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박수열 학생, 장학금 300만원 기부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박수열 학생(창업경영금융학과)이 장학금 300만원을 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수열 학생은 고창군 부안면 운안리에서 태어나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도 지수상기한 사업가다. 2020년에 못다 이룬 학업의 꿈을 이루기 위해 미래융합대학 창업경영금융학과에 입학해 현재 3학년 2학기 중이다. 박수열 학생은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학교에 입학해보니 아직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이번 장학금으로 후배들이 경제적인 걱정 없이 학업을 충실히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수열 학생은 2020학년도 입학 후 지속해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총 650만 원을 기탁한 바 있다. 이번에 기부된 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래융합대학 재학생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군산 귀뚜라미그룹, 장학금 3000만원 지원

군산시는 14일 귀뚜라미그룹(회장 최진민)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과 학업 장려를 위해 고등학생 및 대학생 20명에게 장학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식에서는 고등학생 15명에게 1인당 1백만원, 대학생 5명에게 1인당 3백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알림

제5회 한국실버가요제

- ▲일시: 10월 8일(토), 오후 2시
- ▲장소: 전주 풍남문화광장
- ▲주최: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 ▲참가대상: 만 65세 이상(남, 녀)
- ▲접수마감: 9월 30일 오후 5시까지
- ▲문의: 063-231-6669, 285-6676

010-7304-5665

전북대, 지역과 소통하는 대동제 개막

14일 개막 3일간... 명사특강·어트랙션존 등 운영

전북대학교 대동제가 14일 개막해 3일간 대운동장을 비롯한 대학 일원에서 열린다. 부스행사와 야시장, 놀이시설 등이 준비된 이번 대동제에서는 학생들이 선배들을 통해 취업 관련 지식을 쌓는 '현직자특강'과, 취업의 경문을 넓힐 수 있는 유명한 특강이 건지광장에서 운영돼 눈길을 끈다. 구정문 일련의 거리에는 창업 학생들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로 제작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플리마켓'이 운영된다. 또한 3일 내내 소운동장(농구장) 일원에는 어트랙션존과 보조구장 일원에 다양한 푸드트럭이 설치돼 다



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야시장도 마련됐다. 특히 학생들의 숨겨진 끼를 발산하는 대동가요제 및 댄스 경연대회도 열린다. 이와 함께 초대가수의 무대도 3일 내내 이어진다. 14일 내치와 박혜을 시작으로 15일 현아, DI플루토, 디사라 그리고 16일에는 사이먼도미니과 리드퍼워가 마지막 날 무대를 장식한다. 한편 전북대는 대학 본부와 총학생회, 덕진경찰서, 덕진소방서 등의 유관 기관이 함께 안전관리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총학생회와 대학 본부도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 야간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은성 기자

조재영 전북대 교수, 대학발전 위해 총 1억원 기부

전북대학교 조재영 교수(농생대 생물환경화학과)가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기원하며 3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조 교수는 2008년 교수 임용 직후부터 기부 행보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그가 기부한 금액만 1억 원에 달한다. 본인을 포함해 모든 가족이 전북대 동문이라는 조 교수는 모교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동문인 가족 모두가 마음을 모으겠다고, 2008년 전북대 교수로 임용됐을 때부터 지난해 산학협력단장 재직 때까지 꾸준히 발전기금을 기부하며 그가 약정한 금액만 1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북대 발전을 위한 조 교수의 강력한 의지뿐 아니라 모교를 사랑하는 그의 아내(사회복지학과)와 아들(영어영문학과)의 뜻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전북대 김동원 총장은 9월 14일 오후 4시 조 교수 내외를 초청해 발전기금 기증식 행사를 열고, 감사패 전달 등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조 교수는 "아내와 아들 모두 전북대 동문으로서 모교에 대한 가족들의 마음거품이 남다르다"며 "나와 가족 삶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전북대학교가 더욱 발전하고, 우리 학생들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우리동네 젠더스쿨 1기 진행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정정희)는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부안여성농업인센터와 함께 관내 농촌 지역리더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우리동네 젠더스쿨' 1기를 3회차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젠더스쿨은 성평등 활동을 펼치는 도내 단체가 지역 실정과 주민에게 맞는 교육, 워크숍 등의 성평등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센터는 '우리동네 젠더스쿨' 1기를 기획, 지난 7월 임실군 농업인을 대상으로 1차 젠더스쿨을 실시했다. 이어 8~9월에는 부안군 농촌 관계자 대상 성인지 함양 및 성평등 활동을 진행, 마을 이장, 부녀회장 등 리더들의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해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차별 없는 마을 문화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우리동네 젠더스쿨은 한국사회 젠더지형의 성찰-농촌사회에서의 젠더와 가족(서천여성농업인센터 최애순 대표), 미디어와 여성성-미디어 리터러시(협동조합 마고 이유진 팀



장), 혐오패임 분석과 한국의 남성문화(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최유정 전문인력)의 내용으로 3회차 진행됐다. 정정희 센터장은 "이번에 실시한 젠더스쿨이 농업인의 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촌 지역 성인지적 관점 교육을 통한 성평등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 에코에너지지원,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기탁

남원시는 에코에너지지원(주)(대표 유성민)에서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에코에너지원은 어현동에 위치한 기업으로, 산림사업 및 임산업에서 생산된 산림부산물 등(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을 이용해 친환경 목재펠릿 및 목재칩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기업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전달식에 참여한 유성민 대표는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최경식 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뜨거운 사랑을 실천해주시는 에코에너지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농협-유치원총연합회, 전북 쌀 홍보·나눔 행사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14일 도교육청에서 개최된 전북내 사립유치원 학부모교육(주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북지회, 회장 윤정아)에 참여해 맛있는 밥으로 우리 아이 평생 건강 지켜주세요!를 주제로 전북 쌀 홍보 및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쌀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미네랄 등이 함유되어 있어 반찬과 함께 섭취 시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이며, 전북농협은 '균형 잡힌 건강한 식습관! 우리 쌀과 함께!'로 쌀의 효능과 필요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1년 기준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9kg으로 하루 공깃밥 한 그릇 반에 불과하며 쌀 소비부진은 쌀값 하락 및 재고과잉으로 이어져 식량 주권의 위기, 농업·농촌의 붕괴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북농협은 지난 7월 쌀 산업기반 유지와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전북 쌀 100만포 소비촉진 운동을 선포하고 '하루 두 끼는 밥소유'를 캐치프레이즈로 다양한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식습관, 올바른 식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창고마다 쌀 재고가 가득한 심각한 상황인 만큼 도민들께서 지속적으로 하루 두 끼 식사는 밥을 소비하여 쌀 소비 촉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정읍 보건소 어린이집·유치원 구강건강 교실 운영

정읍시 보건소가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는 구강 보건교육과 불소도포 등의 구강 보건사업에 나선다. 시보건소는 지역 내 아동들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9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88튼튼 어린이 구강건강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구강건강 교실은 구강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구강 보건 교육과 구강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구강건강 생활 습관 형성과 구강 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지역 내 13개소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 420여 명이다. 보건소는 치과외과와 치과위생사로 구성된 구강건강 전담 팀을 구성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치아 홈 메우기를 통해 아동들이 평생 사용하게 될 영구치의 치아우식증(충치)을 사전 예방하고 구강건강의 기초를 튼튼히 다질 수 있도록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 아동 스스로 구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치아 모형 등 다양한 교육 매체를 활용한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지도하고, 불소도포를 통한 충치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제 자봉센터, 경북 포항 긴급복구 지원 활동

김제시 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와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광호)는 제11호 태풍 '현남도'가 휩쓸고 간 경북 포항을 찾아 긴급 복구지원활동을 펼쳤다. 김제시 자원봉사센터는 현장 봉사활동에 필요한 삼100자루를 지원하였으며, 30여명의 도내 자원봉사센터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실외에 빠진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며 침수주택 가구정리, 토사제거, 매장물품 정리, 배식 봉사활동에 힘을 보태고 돌아왔다. 남궁행원 센터장은 "포항지역의 태풍 피해를 뉴스를 통해 접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다"며 "피해 복구 현장에서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주민들의 생활이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 자원봉사자들이 포함 수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강삼성 전라교 정년퇴직 교사, 모교에 장학금 기탁

전라고등학교에서 정년퇴직을 한 강삼성(8회 졸업) 선생님이 본교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본교 졸업생으로서 교직에서도 후배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 강삼성 선생님은 "이 장학금이 마중물이 돼 동문들의 관심과 지원을 이끔으로써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면서 "학생들이 능력을 발휘해 명예를 드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전라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11월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에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성과 봉사 정신, 리더십을 두루 겸비하고, 지역과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전라인 대상 장학금을 만들기로 했다. /정은성 기자